

강아지 토리의

심심할 때 노는 법

설은숙 그림책

17년간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

별이 된 토리에게...



내 이름은 토리, 갈색 푸들 강아지랍니다.
내가 누군지 찾을 수 있나요?



내가 산책을 나가면 다들 다가와요.

형아도 나와 함께 산책 나오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.

무서워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 줄래?

이름은 토리야.

정말 완전 귀엽다.
만져봐도 돼?

이름은 뭐야?



나는 먹보, 그리고 호기심 대장
엄마께서 요리 재료를 떨어뜨리면
얼른 달려가 맛을 봐요.



탁! 탁! 탁 탁!

와! 오이는 역시 맛있어.

아삭 아삭



요건 뭐지?
맛있게 생겼다. 이것도.

형아의 간식은 바로 나의 간식이지요.
형아 눈치를 살피다 재빨리 낚아채어
안전지대로 달려갑니다.



맛있는 사과 먹으러 출발~

휘익



다 다 다 다

어느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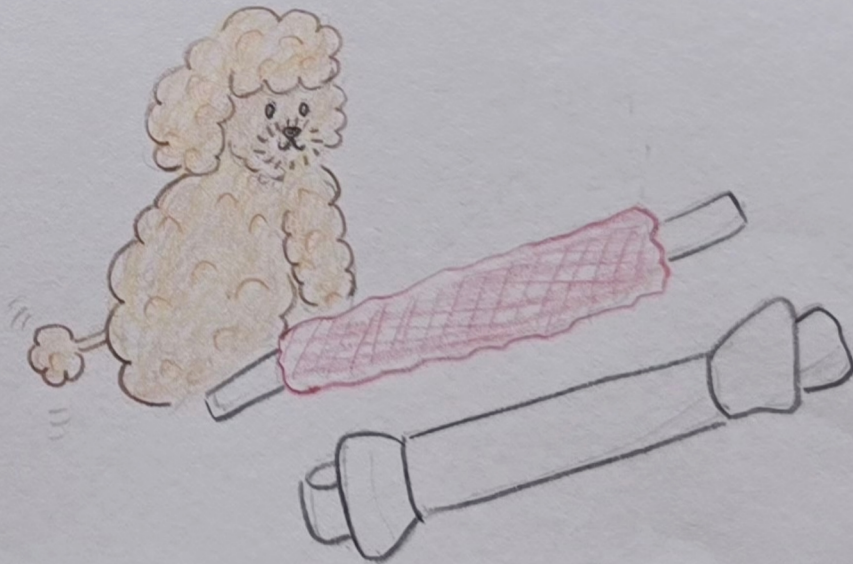
나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.





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어요.
내가 좋아하는 간식이 보여요.

어! 요건 맛있는 고기, 고기다.
그럼 고기 간식부터 먹어볼까?



저기 하얀 건 나중에 먹어야지.



고기 간식 다 먹었으니
이번엔 하얀 것을 먹어 볼까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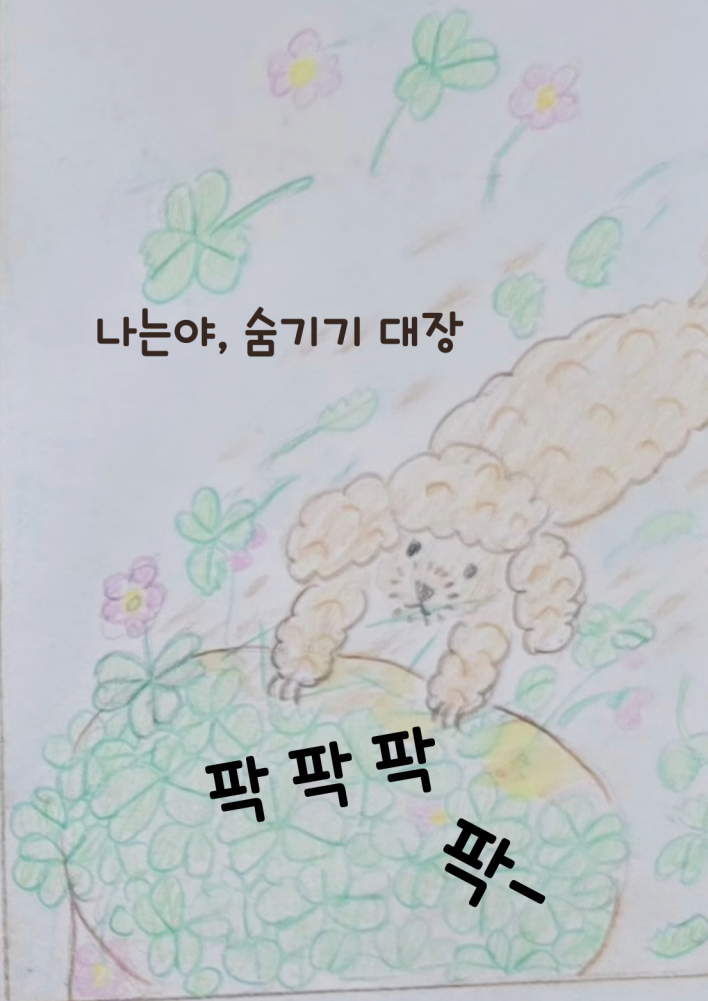
아그작 아그작

다 못겜는 걸.
어디다 숨겨 놓아야지.

베란다에 나갔어요.



나는야, 숨기기 대장



팍 팍 팍
팍-

휴~다 숨겼다. 나중에 먹어야지.



여기가 좋겠다.
딱 내 맘에 드는 걸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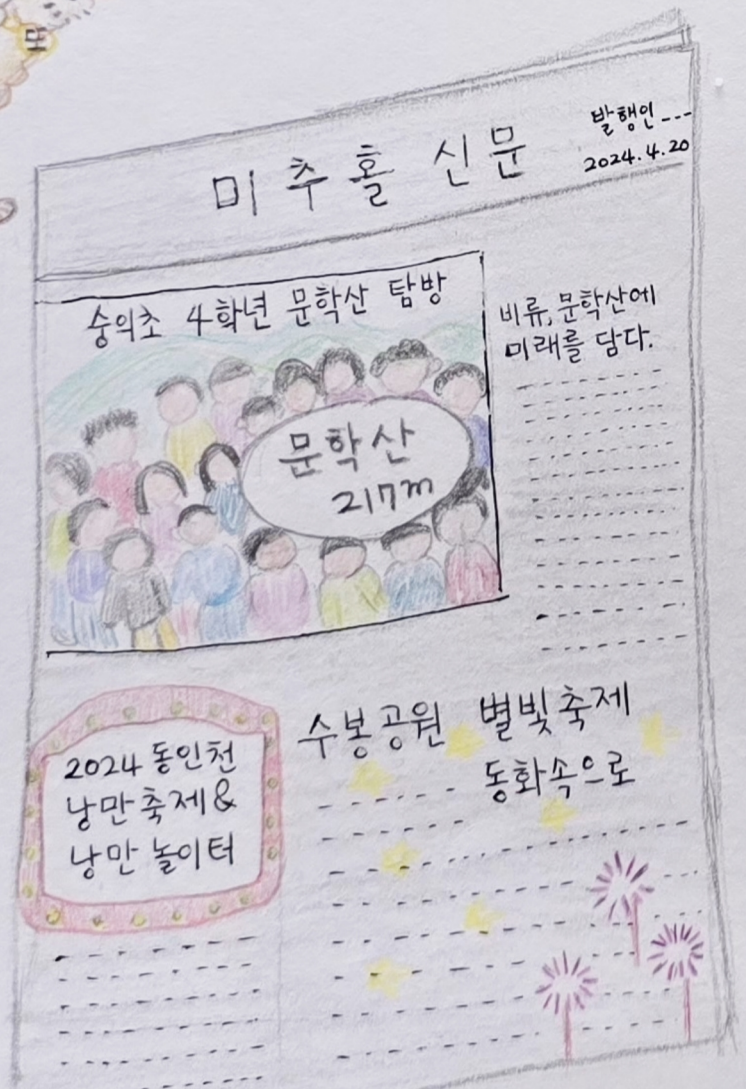
화분에 간식을 숨기고
거실로 돌아왔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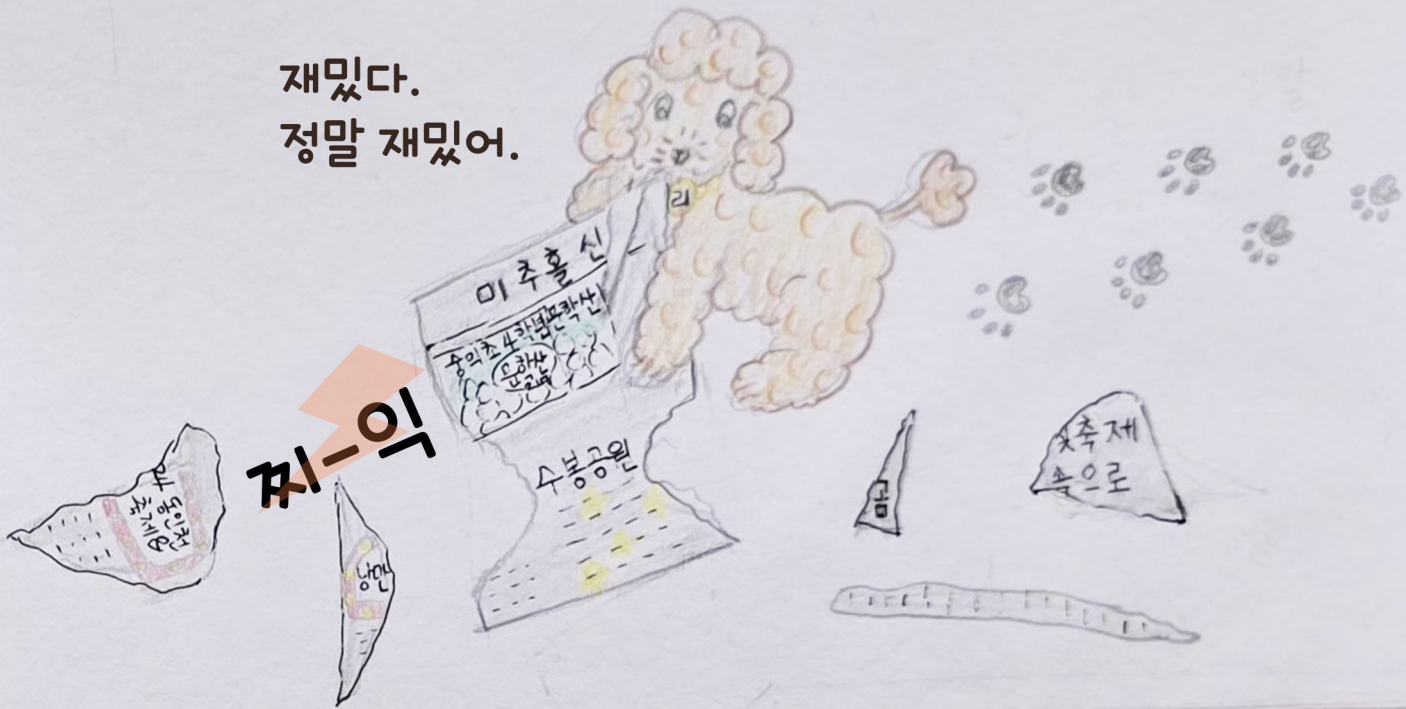
어, 이건 아빠께서 매일 보시는 신문이네.



얼마나 재밌으면 매일 보실까?



재밋다.
정말 재밋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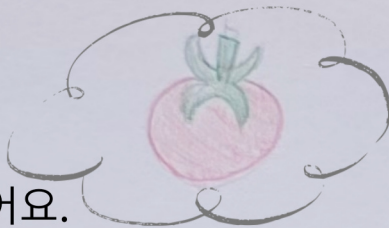
아빠가 좋아하시는 소파 위에 다 모아 둬야지.
이젠 또 뭐하고 놀지?



그때 화분에 열려 있는

빨간 열매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.

며칠 전에 맛있게 먹은 방울 토마토 같아요.



맛있겠다.

날름날름



내 점프실력을 발휘해야지.

화분 위에 뛰어올라 이것 저것 다 먹어봐도
방울 토마토 맛이 안 나요..

아이, 맛없어.



흠, 흠,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.



여기는 나의 보물 창고
매일 재밌는 것이 잔뜩 들어 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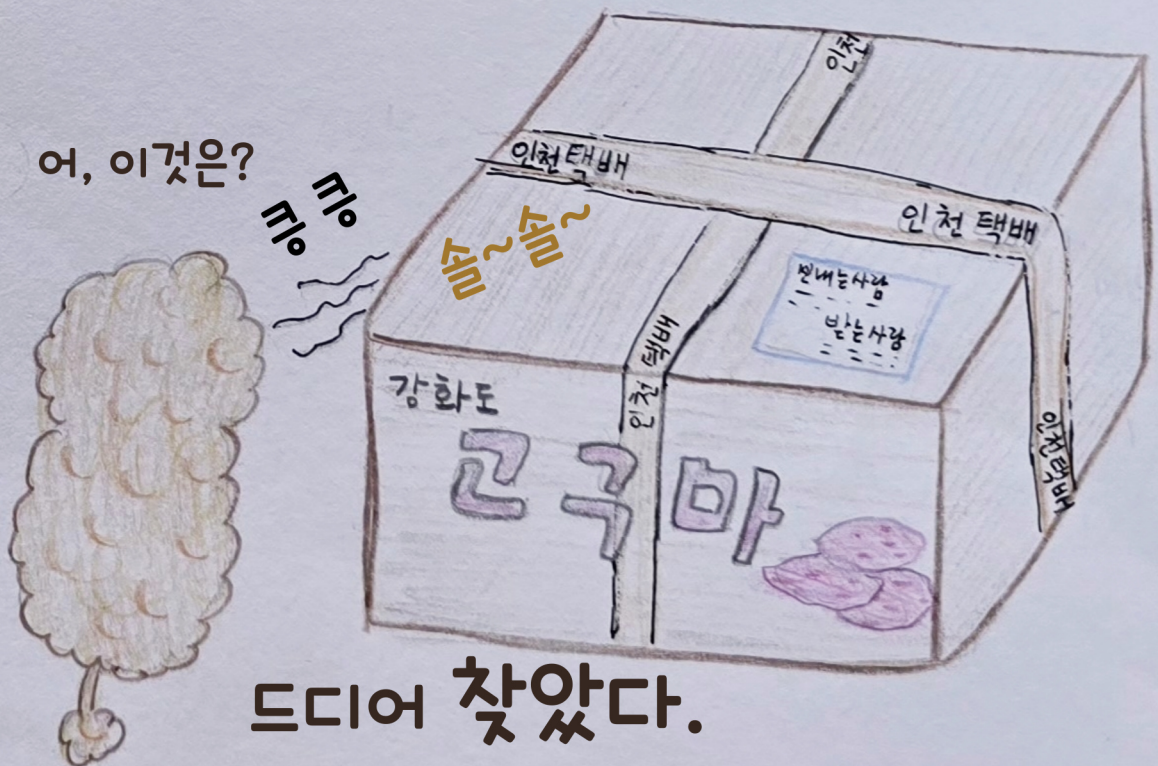


냄새는 좋지만 뭔가 이상해요.

내가 좋아하는 그 멋진 고기 맛이
아니야.



나는야, 냄새 맡기 대장.
다른 맛있는 것을 찾아봐야겠어요.



발톱을 세우고 팍! 팍! 팍!

이빨로 쭈~욱! 나는야, 상자 열기 대장이야.

내가 엄청 좋아하는 고구마다.



제일 큰 걸로 먹어야지.

삶은 고구마도 정말 맛있었는데 생 고구마도 맛있다.



두~ 둥!

띠 띠 띠 띠 띠 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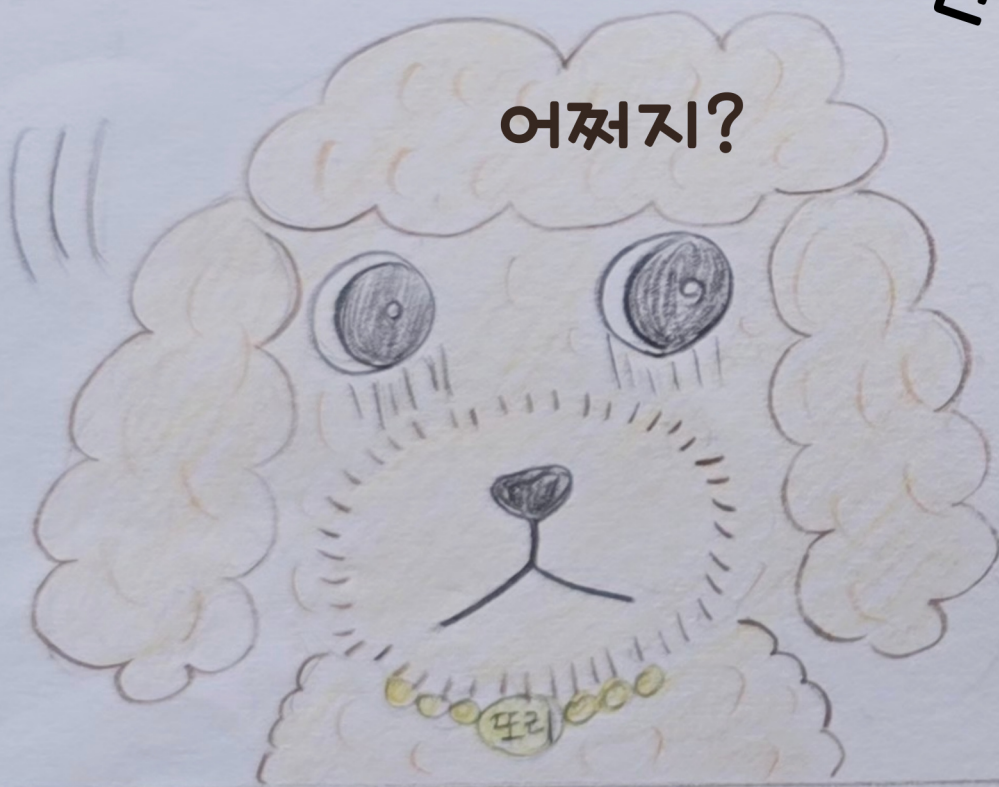
와! 엄마다. 신난다!

어? 그런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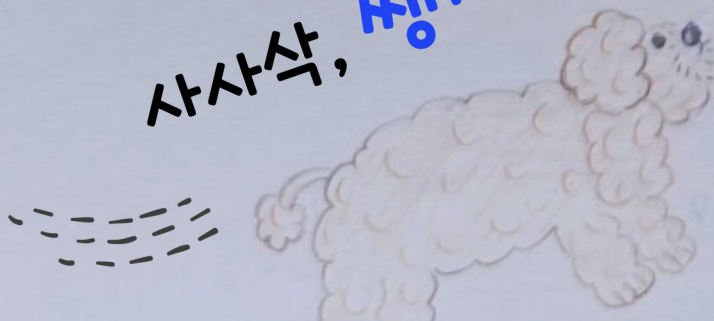


두리번 두리번

어쩌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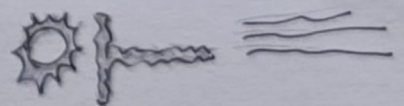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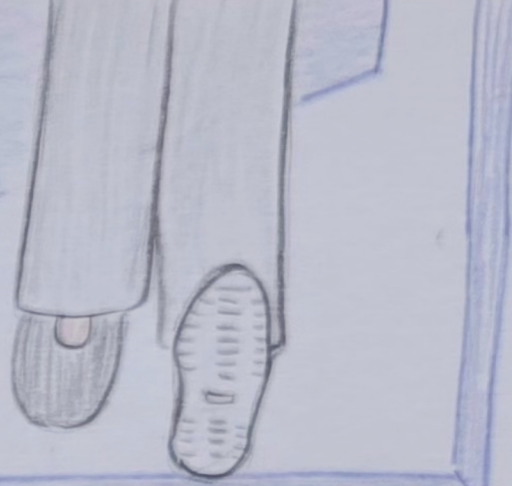


사사삭, 땡~~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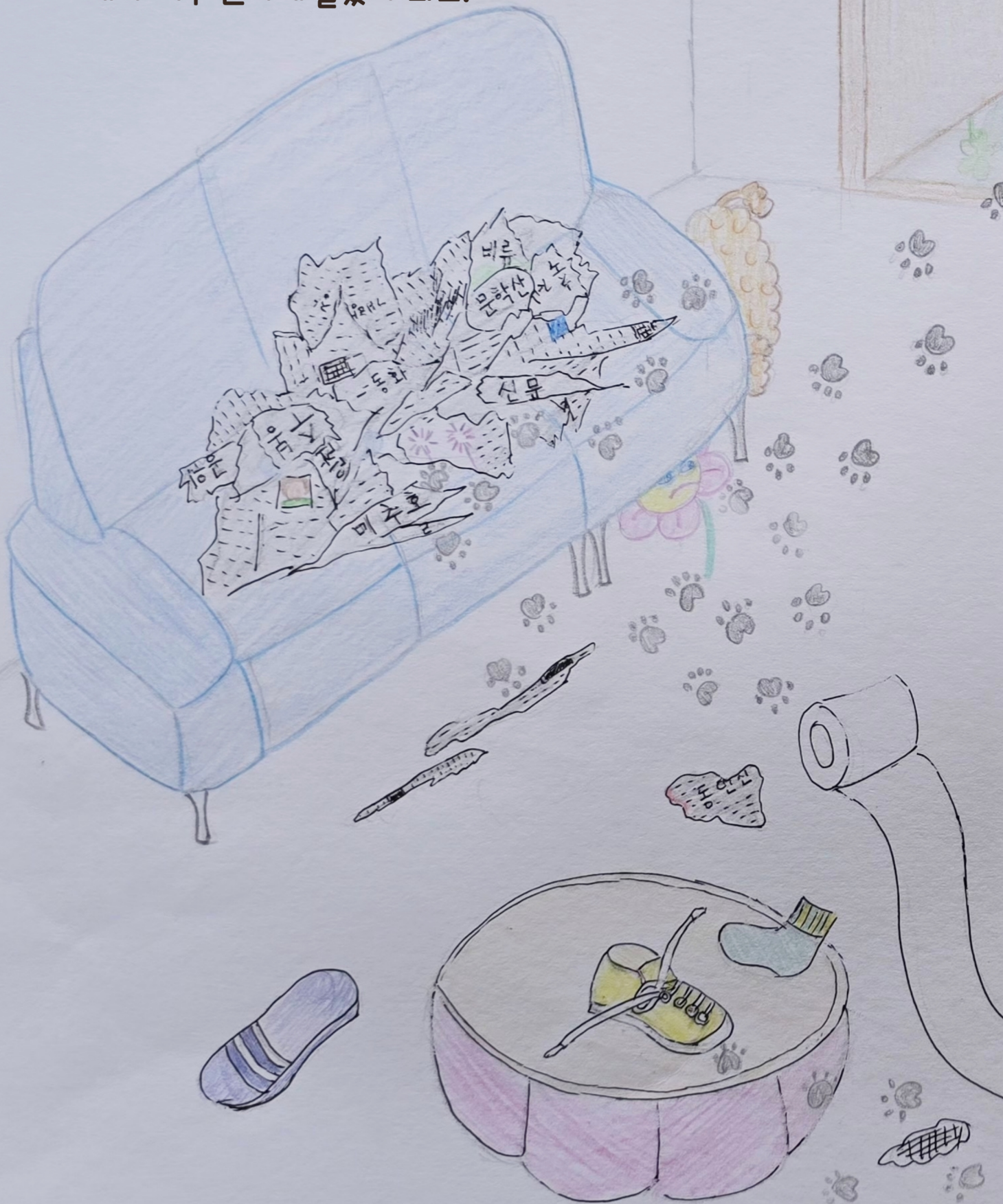
또리야, 엄마 왔어.

많이 심심했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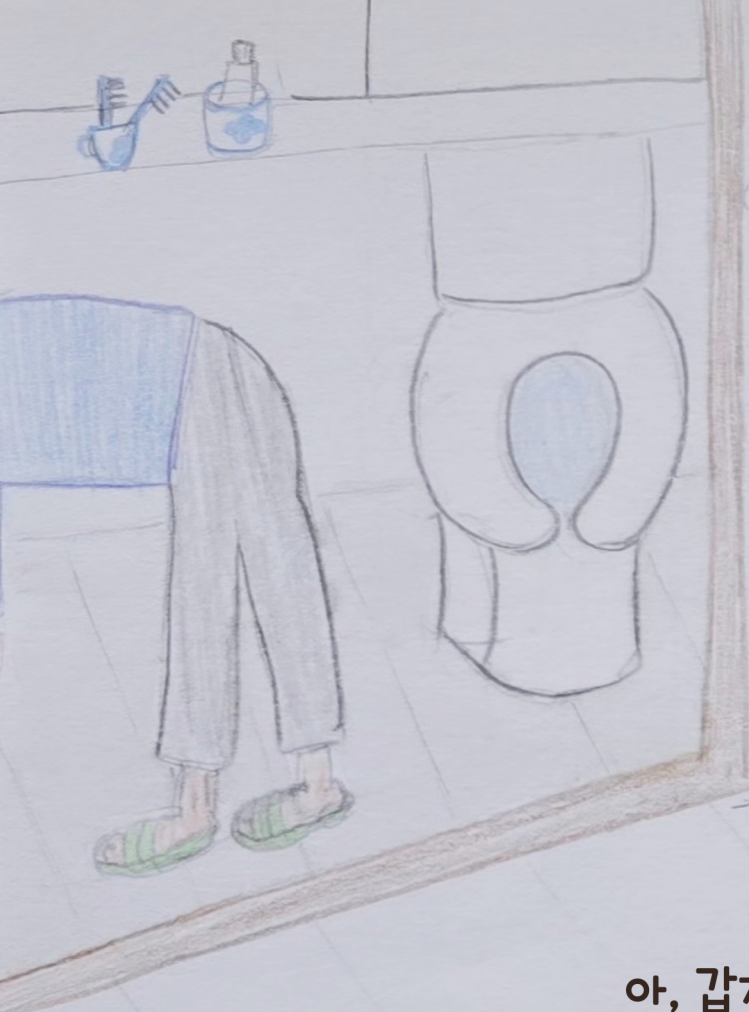


또리

내가 너무 신나게 놀았나 봐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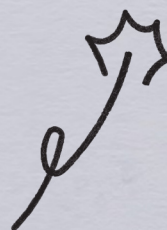






거실 청소 후 이제 엄마께서는
화장실 청소 중이에요.

아, 갑자기 배가 아파.
화장실이 급해. 어떡해.



뽕



부지직



부직--



실 새 없이 나와서
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.



깡깡

직
부지



응가가 계속 나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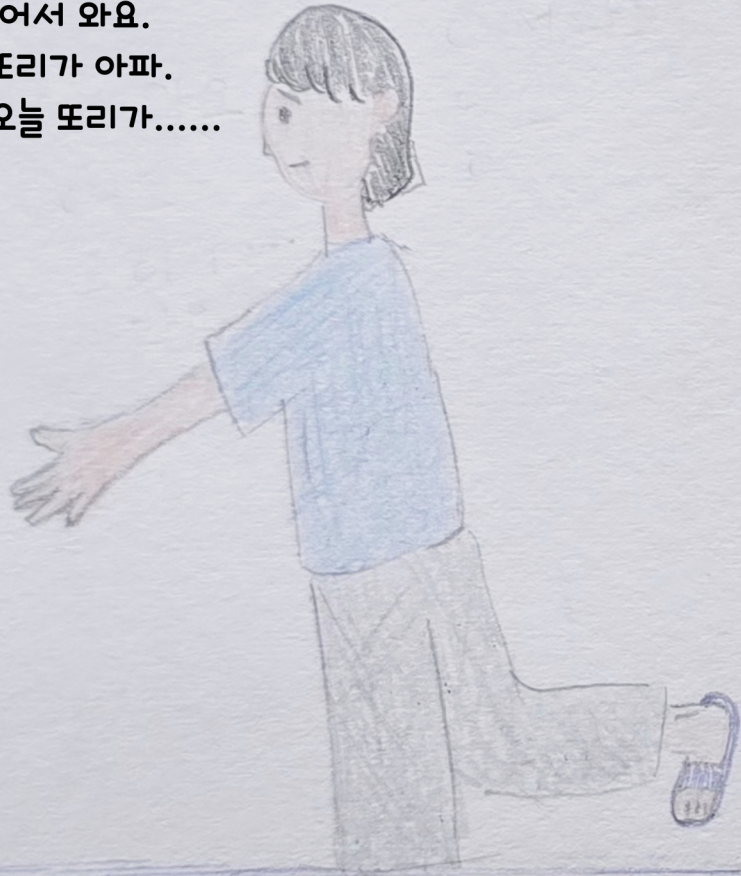
엉덩이도 아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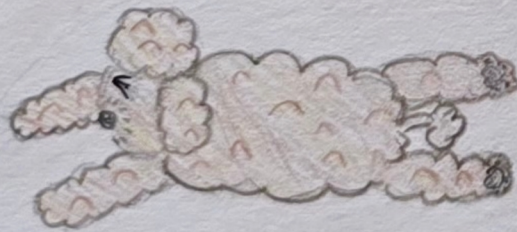
아빠 왔다. 어, 토리는 어디 갔나?
아빠 맞이하러 안 나오네.



여보, 어서 와요.
지금 토리가 아파.
글쎄 오늘 토리가.....



깡~깡~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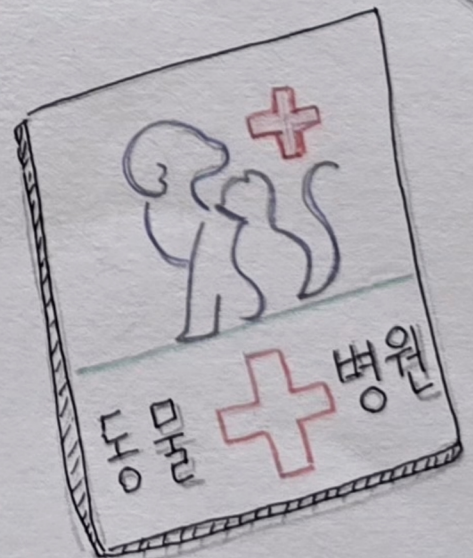


아파서 꿈쩍도 못하겠어.

배탈 때문에 난 병원에 왔어요.
주사는 너무 아팠고
약은 엄청 썼어요.

에앵 앵 앵
개개 쿵쿵

병원은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.



내가 심심할 때 같이 놀던 것들이 어디로 갔을까요?
화분과 신발 그리고 신문도 안 보이고
생 고구마와 보물 창고도 안 보여요.

어, 몇 개는 찾았다. 그런데...



너무 높다. 어떡해.
이리와. 이리와.



딱딱 탁탁
딱딱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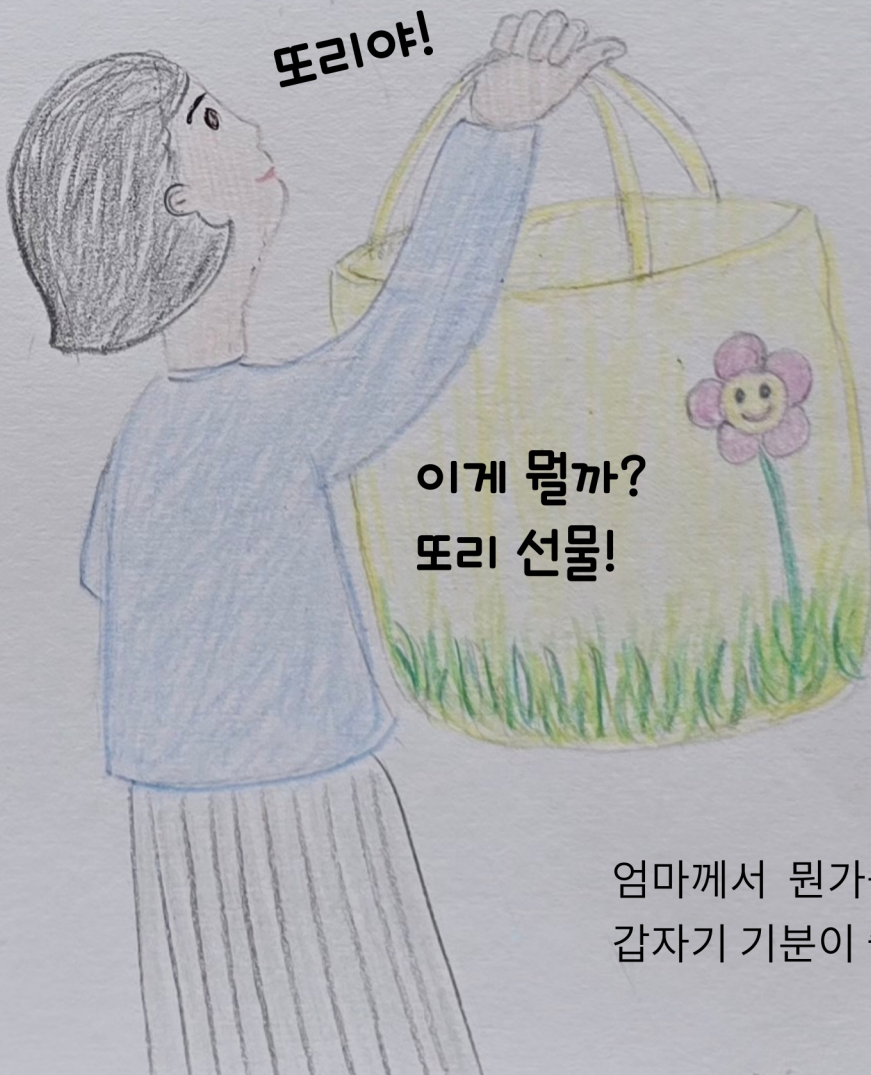
좋아하는 내 장난감이 막 사라져버렸어.
오늘 뭘 가지고 놀지?

기분이
안 좋아



심심해.

도리야!



이게 뭘까?
도리 선물!

엄마께서 뭔가를 사오셨어요.
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.

픽 픽 픽

냐

우와! 신난다. 속에서 막 간식 냄새가 나.

픽

진짜 간식이 들어있네.

맛있다. 오, 여기 또 있어.

우왕, 재밌다. 재밌어.



사라진 내 장난감이 이젠 생각도 안 나요.
이제 기분이 좋아졌어요.

형아 하모니카 연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시간이 즐거워요.
내 노래 실력 볼래요?



아~오~ 웡~아오~



라라랄라라



엄마, 아빠, 형아랑 함께 놀러 간 바다
살랑살랑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
신나게 땅을 짖어요.

우와!
우리 꼬리 땡파기 잘한다.
꼬리 아주 신났네.



또리 웃는 모습보니 행복하다.

병이 나아서
저렇게 잘 노니
얼마나 보기 좋은지.

또리야, 흠 튼다. 에구!

박

박 박-

파파박-

나는야, 땡파기 대장
오늘 기분 최고야.

또리, 누구한테 올래?
아빠한테 와.

또리, 형아한테 와.



나는 우리집 막내, 또리예요.
우리 가족은 모두 날 사랑해요.

또리는
당연히
엄마 바라가지.

함께니까
하나도 안 심심해.

한두번
한두번
한두번

내일 또 놀아요.





2024 마을을 품은 그림책 강아지 토리의 심심할 때 노는 법

발 행 일 2024년 11월 15일
글·그림 인천송의초등학교 교사 설은숙
발 행 처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
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51번길 45
전 화 032-770-0112
인 쇄 몬스터북

이 책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2024 마을을 품은 읽견쓰 그림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
기획·제작되었습니다.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유, 초, 중, 고등학교의
교육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이 책을 교육 목적 이외의
용도로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남부교육지원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.



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.
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이 책은 freepik.com의 이미지가 일부 사용되었습니다

